

중국에 대한 이해

중국의 현 대내외 정책에 대한 관점



중국에 대한 이해

중국의 현 대내외 정책에 대한 관점

2022년 8월 2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세상의 관심은 중국의 반응과 이로 인한 긴장 관계에 집중됐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베이 도착 직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중국 공산당(CCP)의 가속화되는 공격에 직면해 우리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우리의 민주주의 파트너인 대만이 자국과 자국의 자유를 지키는 과정에 미국이 함께 한다는 분명한 성명으로 봐야 한다」

중국의 반응은 전세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긴장 고조와 전쟁은 현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과 중국이 국내 이슈를 다루는 방식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대외 정치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성은 오래전부터 국내외 문제와 연관된 다수의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이면서 더욱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Konrad-Adenauer-Stiftung Korea Office)와 성균중국연구소(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가 2022년 7월 4일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중국, 한국, 미국, 유럽연합에서 중국학, 국제관계, 외교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내 문제 현황은 물론 다자관계 맥락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 중국의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미중 관계 맥락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 대외정책 전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평가했다.

중국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평가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정치 패러다임에 영향을 주는 세가지 요소는 관행, 명분, 의지이다.

• 관행 (정치적 양상의 지속과 변화)

중국의 정치 변화는 경로 의존적인가 경로 독립적인가? 경로 의존적인 변화는 관행의 지속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경로 독립적인 변화는 관행의 변화 측면에 주목한다. 중국의 정치 변화 전망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속성과 변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전개를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요인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 명분 (당원과 국민의 지지)

명분은 중국의 합법적 통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반이자 필요 조건이다.

CCP 일당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유형의 명분이 필요하다. 당이 국가를 세우는 역사적 정당성과 경제 성과가 새로운 개혁을 통해 확대되는 업적 정당성의 선전이 그것이다. CCP는 역사적 정당성과 업적 정당성을 제고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통합 기준으로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의지 (의도와 능력)

기존 관행의 지속과 변화 및 사회적 대의의 누적으로서 이데올로기, 학습, 선전의 강화와 같은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최고 지도자의 권력 의지가 어떻게 강조되고 표현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중국은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대신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과 중국 정부는 CCP의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를 비롯해 권력의 집중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권력 집중 목표는 중국 사회의 현 시국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의 현 시국은 점점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현재 중국의 정치 체제는 광범위한 압력을 받고 있다. 국내 문제 관점에서 중국은 불확실성 시기에 놓여있다. 공급망 차질과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엄격한 봉쇄 조치와 식료품 부족은 국민과 정부 간의 사회적 계약에 큰 균열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난은 중국의 코로나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팬데믹 이전에 나타난 구조적 성장둔화로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여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에너지와 식량 위기, 자력갱생 강화, 고용률 저하와 같은 대내외 요인들이 경제와 사회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사회적으로 교육과 창의성, 소프트 파워가 부족하고 코로나 정책과 연구 고령화로 사회적 리스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비교 시 전반적인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더불어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으로 중국이 받는 전반적인 압력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중국은 외교적 전술 맥락에서 다음 네가지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권위주의적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통한 외교 연대 강화
- 국제기구와 조직을 활용한 다자주의 강조 및 다자외교 영향력 확대
-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쿠바, 북한, 콜롬비아, 라오스, 미얀마 등 기존 수교국과 관계 강화
- EU 및 아시아 국가들이 중립을 유지하도록 설득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정책 수단은 수용, 적응, 도전 세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경제 지원을 늘려 왔다. 2022년 4월 19일, 중국 외교부는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26일과 6월 4일 사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남태평양 8개국을 방문했다. 그는 이후 쿡 제도의 총리, 니우에의 총리 겸 외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피지에서는 2차 중국-태평양제도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홍콩, 신장, 대만 등과 관계된 핵심 이익의 추구 또한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미중 관계는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악화되었다.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안보와 핵심 이익에 대한 침해는 진행형이다. 따라서 중국 외교정책에서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중국 외교정책의 미래 방향성 예측

중국 정치의 근본은 가까운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식 제재와 경제적 강압 조치는 계속해서 일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호주의 미국 편승과 그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강압 전략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기후 변화와 같이 미국과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대만과 홍콩 문제와 같은 국가 주권과 관련된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력의 집중, 세계와의 제한된 관계, 국제 문제에 관한 중국의 독단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듯 중국 정치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기본 원칙과 기초가 헌법과 당헌 등 중국의 법과 당 규정에 깊이 뿌리내려 있고 당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

중국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압력을 견디고 있다. 국내에서는 낮은 고용률, 식료품 부족, 제로 코로나 정책이 맞물리며 사회적 리스크는 역대 최고 수위로 올라갔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자력갱생이 강조되면서 내부 압력이 고조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과 가치가 침해 받고 있다는 인식 등 중국이 느끼는 외부 압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한국 사무소에 대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은 유럽과 NATO는 물론 한국까지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공통의 이해와 가치를 지닌 전 세계 파트너들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깊이 있는 대화를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KAS 한국 사무소는 한국과 독일 모두와 관련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정치, 과학, 군사 차원의 외교와 안보 정책의 대화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KAS는 2021년 이후 체제 경쟁과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한 관점과 옵션을 논의하고 중국과의 협력이 어려운 부분이나 더 큰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

이강은(Kang-Eun Lee)은 현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에서 단기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며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중국과 미국의 맥락에서 보는 한국과 EU의 정치입니다.



Konrad Adenauer-Stiftung Korea Office

kaskorea@kas.de
www.kas.de/korea



The text of this publication is publish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4.0 international”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legalcode>